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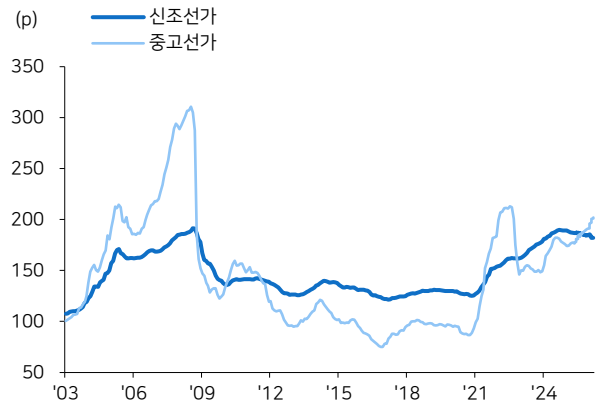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3. 19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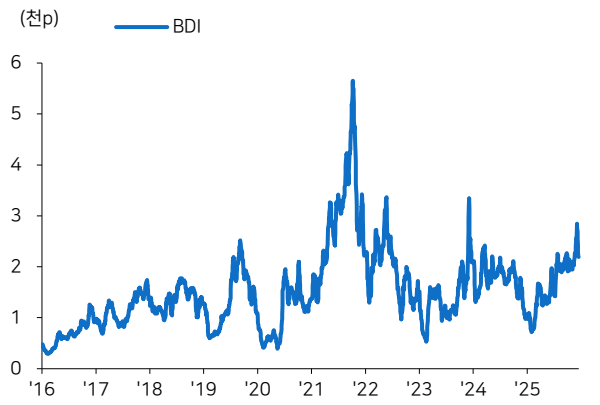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0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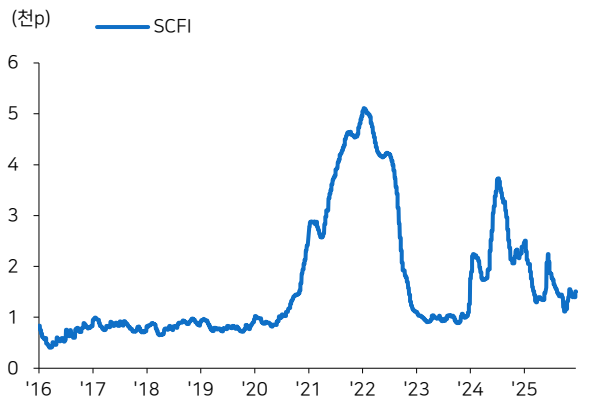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7.0달러 (+4.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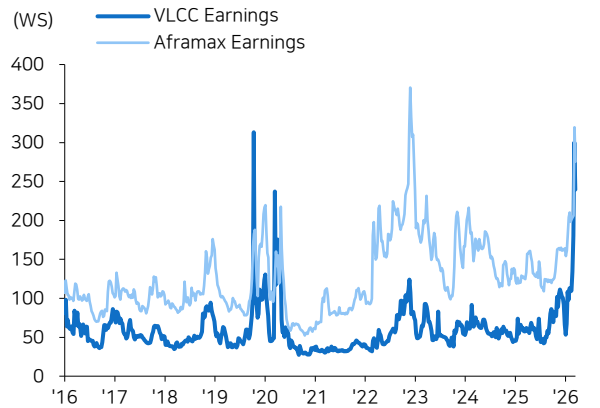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24.0p (-1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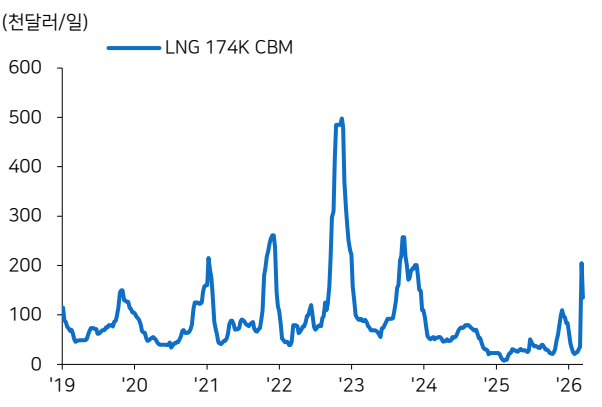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710.4p (+221.2p WoW)



VLCC Spot Rate 239.7WS (-60.3p WoW)



LNG Spot 운임 135.0천달러 (-70.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美, 존스법 60 일간 한시 면제...석유·가스 운송 규제 완화 (뉴시스) https://zrr.kr/ExBNHn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군 작전 수행 중 석유 시장의 단기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항구 간 물자 운송을 미국 선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존스법(Jones Act)'을 6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보도됨. 이번 조치로 외국 국적 선박도 미국 내 항구 간에 석유, 천연가스, 비료 등 필수 자원을 운송할 수 있게 되어 공급망 유연성이 확보될 전망이라고 알려짐. 다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내 운송 여건은 개선될 수 있으나, 정유 설비와의 구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치솟는 유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해짐.

조선업계 에틸렌 수급 우려 '급한 불' 진화...산업부, 車 공급망도 대응 (뉴시스) https://zrr.kr/JwEyEC

산업통상자원부가 선박 건조 핵심 공정인 강재 절단에 필수적인 에틸렌 수급 차질을 해결하기 위해 화학업계와 협업하여 조선업계가 당장 필요한 1~2주분 긴급 물량을 확보했다고 보도됨. 정부는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입 부대비용 지원 및 수출 제한 등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해짐. 이번 조치는 산업부 주도로 화학 · 조선협회 간 소통을 통해 여력이 있는 화학 업체와 조선사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조선 및 자동차 등 전방 산업의 생산 중단 위기를 선제적으로 방어한 사례로 알려짐.

'적과의 동침' HD 현대, 독일 부품 공급망 활용 페루 잠수함 현대화 사업 협력 검토 (더구루) https://zrr.kr/dXXfoi

HD현대가 페루 차세대 잠수함 개발을 위해 기존 페루 해군과 협력 관계가 깊은 독일 방산 기업으로부터 핵심 장비를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됨. 이번 사업은 1,500톤급 잠수함 건조를 목표로 리튬이온 배터리 및 차세대 중어뢰 '범상어' 탑재가 예상되며, 한국의 기술력과 독일의 부품 체계가 결합한 3자 협력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 시마 조선소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작업에 착수했으며, 기술 이전을 통해 2030년대 초 첫 번째 잠수함을 인도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Eni takes FIDs on pair of giant Indonesia deepwater projects (Upstream) https://zrr.kr/yAM7u5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Eni가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해상의 대규모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Gendalo-Gandang과 Kutei North Hub 프로젝트에 대한 FID를 내렸다고 보도됨. 이번 프로젝트는 2028년 생산 시작을 목표로 신규 FPSO 건조 및 기존 FPU 연결을 통해 일일 20억 입방피트의 가스를 생산하며, 생산된 가스는 본탕 LNG 플랜트의 원료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Eni와 Petronas의 합작법인을 통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초기 5년간 150억 달러가 투입되며, 드릴십 물색 및 신규 FPSO 발주 등 관련 해양 플랜트 및 시추선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으로 알려짐.

Indonesia proposes potential gas buyer for giant Abadi LNG project (Upstream) https://zrr.kr/YOnzT4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바디 LNG 프로젝트의 FID를 앞당기기 위해 국부펀드를 잠재적 구매자로 내세우며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됨. 해당 프로젝트는 2026년 중반까지 기본설계(FEED)를 마치고 EPC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며, 삼성E&A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플랜트 기업들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짐. 특히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이점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맞물려 향후 해양 플랜트 및 육상 LNG 설비 시장의 핵심 사업이 될 전망으로 알려짐.

HD Hyundai stresses bid to splash $4bn in Tamil Nadu shipyard has yet to be finalised (TradeWinds) https://zrr.kr/FyL1oj

HD현대가 인도 타밀나두주에 40억 달러 규모의 조선소를 건설한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됨. 회사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베트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생산 거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의 조선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현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해짐. 국내 군산조선소 매각과 동시에 해외 거점 확보를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